

치사

싱그러운 바람에 흔들리는 형형색색의 연등들이 봄햇살을 머금은 푸른 잎들과 어우러져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듯 뜻 깊은 시간에 종단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백년대계본부의 출범과 2017년 제1차 사부대중공사를 마련하여 함께 격려하고 모두의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종단은 사회적 역할이나 종단 내외의 여러 제도개선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지만, 종도들의 화합과 다양한 견해에 소통하고 안정을 이루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승려 복지제도 시행, 여러 법인의 유익한 상생을 위한 관리의 시작, 토지처분금을 활용한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 해외특별교구의 출범, 논산 군법당 건립, 각종 해외 구호사업의 전개와 복지시설 건립 등, 이전에는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던 종단 차원의 대형 불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모두는 화합과 안정을 통한 신심과 원력의 기반 위에서 종도 모두가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단은 더욱 근본적이며 오래 묵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공동체의 기본 구성요소인 스님과 신도, 사찰과 관련한 근본 문제이며 종단 운영 시스템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단 각종 통계가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 한해 출가자가 156명으로 연간 출가자 총인원 200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출가자 평균연령 40대, 나아가 전체 승려 중 50대 이상 비율이 거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가인원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정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신도들의 현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여성 불자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매년 3만 명의 가까운 신도들이 신규 등록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사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영남 위주로 소규모 사설사암 중심이며 인천을 비롯한 대전, 제주와 신도시들에서는 아예 사찰 건립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 사찰의 위기와 공동화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웃종교인 천주교와 원불교가 성당과 교당의 통폐합 움직임을 고려하고 있듯이, 사찰도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과 사회상황과 현안에 대하여 능동적이면서 통합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제도 진지하게 요구받고 있기도 합니다.

중앙종무기관의 존재 이유는 각종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소통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한과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중앙과 지역교구의 조화로운 발전과 안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단 공동체 속에서 안락을 느끼면서 형성되는 일체감 속에서 미래를 꿈꿉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구와 사찰들이 아직 개별적 활동에 익숙해 있습니다. 교육과 포교, 복지를 교구단위로 책임지자는 취지에서 교구중심제와 교구 재정집중을 제안했지만 공동체 전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종단 각 교구의 상황은 시대와 현실에서 요구하는 여러 역할을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중앙종무기관 역시 대부분의 재정을 분담금에 의지하다 보니 획기적인 재정 확충과 긴요한 사업의 추진이 어렵습니다. 신도시 포교, 각계각층의 불자 관리, 성보 문화재의 전승과 보전, 각종 사회사업과 복지사업들을 온전하게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종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만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엄중하고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동체의 기본인 스님과 신도, 사찰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단 운영을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신도들의 시주에 의존하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나아가 종단운영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결사추진본부와 불교사회연구소를 통합하여 백년대계본부를 구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 속에도 안정적으로 종단의 미래를 고민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제안할 단위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출범식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대중공사를 통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미래를 일구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진지한 경청과 탁마를 통해 찾아가는 백년대계본부의 소중한 의미와 앞으로의 실천이 우리 종단과 사부대중,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2017)년 4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